

수년간 써 온 이름 있는데...남구 명소 명칭 공모 논란

푸른길 브릿지·스트리트 푸드존·백운 호랑이 등 전국 공모 상인들 “혼란 가중”...남구 “쉬운 이름으로 홍보 효과 기대”

광주시 남구가 최근 백운광장 인근 명소들의 ‘명칭 공모전’을 시작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5년 전부터 이름을 짓고 예산을 들여 알려왔는데 ‘홍보·경제효과를 끌어올린다’는 이유로 개명에 나섰다.

28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남구는 ‘푸른길 브릿지’, ‘스트리트푸드존’, ‘백운광장 토요 야시장’, ‘백운호랑이’ 등 4개의 명칭에 대한 공모전을 진행한다. ‘백운호랑이’는 남구청사 미디어월에 등장하는 호랑이 영상이다.

새 명칭 선정 결과는 전문 심사와 제안자 면접을 거쳐 오는 7월 8일 공개된다. 남구는 이번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백운광장 도시재생사업의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담았거나 쉽고 기억에 남을만한 우리말 명칭을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모전은 허울이고 실제목적은 홍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스트리트푸드존은 지난 2022년 개장을 앞두고 명칭과 심벌마크에 대한 공모전을 진행했지만, 결

국 명칭이 바뀌지 않았다.

홍보를 위해서 과거 공모전을 진행하고도 명칭을 바꾸지도 않았으면서 또 공모전을 반복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남구 관계자도 “기존 이름에 대해 ‘왜 영어로 이름을 지어놨느냐’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고, 홍보 효과를 기대하며 공모전 진행을 결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홍보 효과를 노린 근시안적 행정으로 정책 신뢰도를 낮춰 결국 행정에 혼란을 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미 수년간 명칭으로 사용해 고유명칭으로 굳었다는 점에서도.

현재 ‘푸른길 브릿지’, ‘토요 야시장’, ‘스트리트푸드존’, ‘백운호랑이’의 명칭은 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 당시인 지난 2019년부터 남구 도시재생과에서 붙여 최근까지 불려왔다.

일부 스트리트푸드존의 상인들조차 명칭 변경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스트리트푸드존에서 먹거리를 판매하는 한 상인은 “이름을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

다. 이미 스트리트푸드존으로 알려져 오히려 방문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을까 싶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다른 상인은 “‘스트리트푸드존’이나 ‘푸른길브릿지’ 같은 이름이 영어이다보니 어르신들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현재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쉬운 한글 이름으로 바꾸면 좋을 것”이라면 서 “애초에 처음부터 충분한 고려를 한 명칭을 붙여 홍보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공모전 결과 선정된 명칭이 대중적 공감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공모전을 열어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을 선정하면서 경기도민이 ‘평화누리’라는 새 명칭이 이상하고 공감이 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경기도민정원 홈페이지에는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 게시글에 4만여명이 넘게 서명하기도 했다.

또 남구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고 한 참여자격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공모전 상금을 노리는 속칭 ‘공모전 헛터’들이 선정될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단순 홍보나 ‘안 되면 말고’ 식이 아닌 명칭 변경이나 제정을 왜 진행해야 하는지 명확한 생각을 가



광주시 남구 백양로 '스트리트 푸드존' 입구에 영문 명칭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지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좋은 이름은 지역의 랜드마크, 명소를 부각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브랜딩 전략 차원에서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름이 정해져야 한다”며 “단순히 홍보 목적으로 이름을 새로 짓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원 기자 hey1@kwangju.co.kr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UCC 출범

〈지역 공공형 사업연합대〉

“글로벌대학 최종 선정 최선”

교육부 글로벌대학 예비지정을 받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3개 대학이 ‘지역 공공형 사업연합대학’(UCC)을 출범시켰다.

동신대(총장 이주희), 초당대(총장 박종구), 목포과학대(총장 이호균)는 28일 초당대학본부에서 UCC 출범식을 열었다.

행사는 3개 대학 총장과 부총장, 대학평의원회 의장, 직원 대표, 학생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UCC(University Community Collaboration)는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글로벌 전남’을 만들기 위해 자·산·학이 함께 운영하는 지역공공형사업연합대학이다. 단일 정관, 단일 이사회 체제로 한 거버넌스

를 구축하고 광역지자체와 대학, 기초단체, 지역혁신기관, 공기업, 지역기업이 연합사회를 구성한다.

이들 대학은 교육부의 글로벌 대학 사업에 UCC 모델을 제시해 예비지정됐다. ‘글로벌 대학’ 사업은 교육부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30곳을 글로벌 대학으로 지정해 1개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비수도권 대학 지원정책이다.

UCC는 I-N-G 캠퍼스 체제를 갖추게 된다. UCC I-캠퍼스는 교육혁신을 위한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UCC N-캠퍼스는 5개 사·군 맞춤형 특화교육을, UCC G-캠퍼스는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과 지역 학생들의 국제화 등 In & Out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동신대 연합은 오는 6월 초 글로벌 대학 실행계

획 초안을 완성해 중순경 전남도지사, 5개 사·군 자치단체장, 3개 대학 총장이 공동으로 UCC 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오는 7월 말 글로벌대학 UCC 단일 거버넌스를 출범시킬 계획이며, 7월 26일까지 교육부에 글로벌대학 실행계획서를 제출한다.

이주희 동신대 총장은 “지역이 어려울수록 대학이 지역 속으로 더 뛰어들어야 지역이 살아나고 대학도 발전한다는 인식에서 공공형사업연합대학을 구상했는데 세 대학 구성원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출범식에 이르게 됐다”면서 “지역과 대학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차질 없이 실행계획서를 작성해 글로벌대학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하이패스 없이도 무정차 통행료 납부 가능

국토부,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 ‘번호판 인식’ 1년 시범운영

남해고속도로 서영암~강진무위사·장흥·보성·별교·고흥·남순천~순천만 영업소 등에서 하이패스를 달지 않은 차량도 무정차로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남해고속

도로 영암~순천 구간(106.8km)에서 1년간 시범운영 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를 차량에 설치하거나 현장에서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영업소에서는 하이패스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이 무정차로 통과해도 번호판을 인식해 요금을 부

과하게 된다.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전등록 방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결제된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 15일 이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하면 된다.

15일이 지나면 미납으로 처리돼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법원, 채무자 집인 줄 알고 ‘강제 개문’ 집주인 “법적 문제 없다니...이해 못해”

광주지법 “규정 개선 검토”

광주지법 판사 장덕동 다세대 주택 소유주 A(52)씨는 지난 21일 오후 택배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 복도 CCTV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성인 5명이 자신이 임대 내준 옆방의 문을 강제로 부수고 침입하는 장면을 확인한 것이다.

이들은 집에서 잠시 머문 뒤 문 손잡이를 교체하고 사라졌다. A씨의 신고로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들의 정체는 법원 집행관이었다.

민사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의 물건(유체동산)을 압류하기 위해 강제 진입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채무자는 1년 전 다른 곳으로 이사갔다. 채무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A씨 주택으로 확인돼 집행이 진행된 것이다.

이번 강제집행에 앞서 집행관들은 지난 16일에도 한차례 이곳을 찾았지만 부재중이어서

들어왔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 집행관실은 이의를 제기하는 A씨에게 “민사집행법상 부재시 중인 2명과 동행하고 열쇠 수리공을 통해 적법하게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집행사전·사후 고지 의무는 없다. 채무자가 채무면탈을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고 답변했다.

A씨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항당해 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집행 과정에서 다른 채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더라도 이를 거주자에게 알려야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적으로 관련 규정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규정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한 변호사는 “집행과정에서 오류가 간혹 발생해 사후 고지라도 해야 한다는 규정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됐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함께하는 100년 동행

서광주농협

아름다운 동행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8%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히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치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운암혁신지점 062)529-5335~6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유타하나로마트 062)373-3235

애니로마트점점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